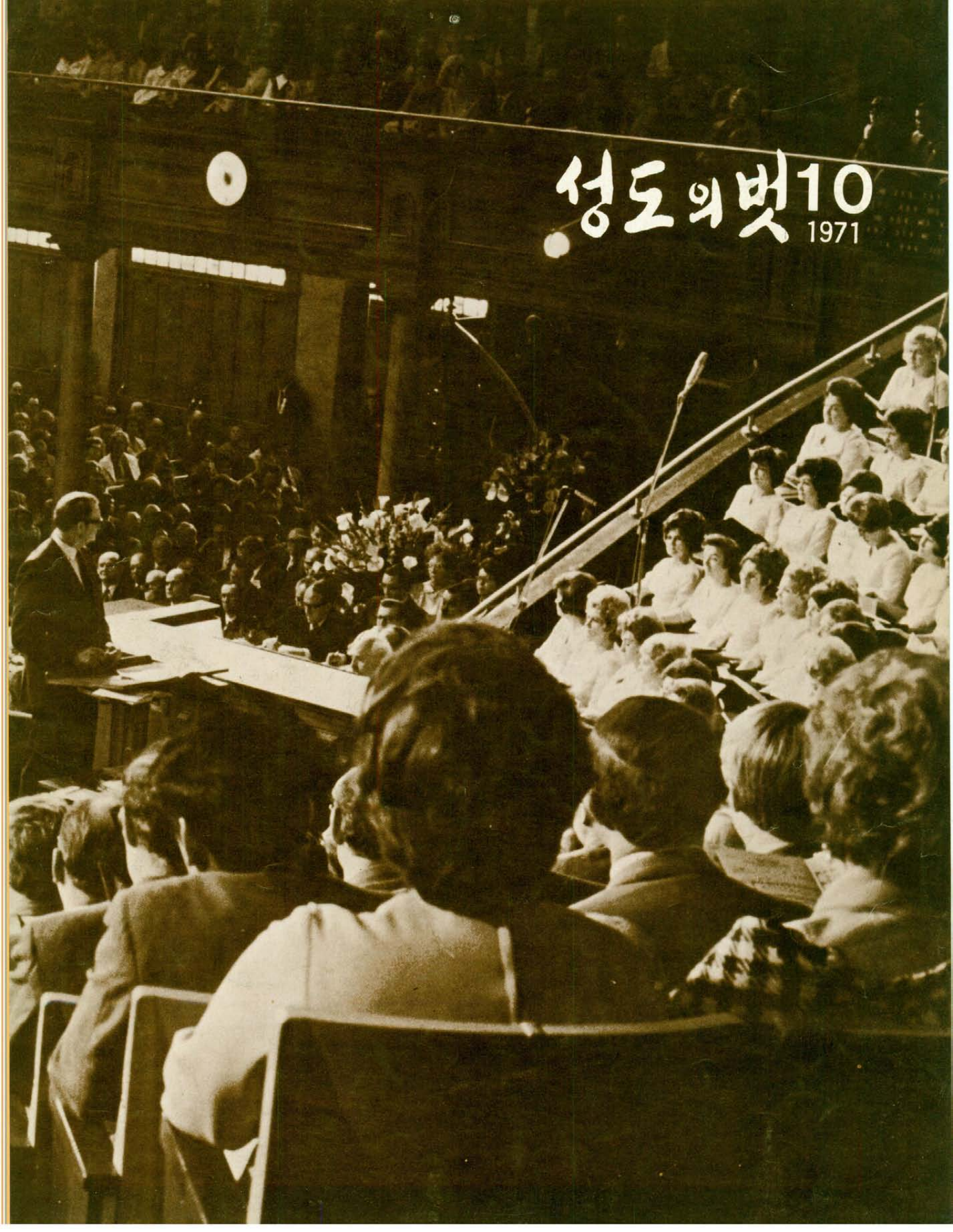


성도의 빛 10

1971



영감의 메시지



헨리 디이 테일러

●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든 위대한 신앙의 권세를 소유하여 역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허가해 주셨습니다. 헨리 에이 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미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여럿 두었으면서도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나라는 대관장단의 부름이 전해지자 그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름에 응했습니다. 여행 동반자 세 명과 함께 그는 증기 기관차 아리조나호에 몸을 싣고 뉴 화운드 랜드의 성 요한 항을 떠났습니다.

항해 중에 무서운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끝내는 기도를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막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배가 몹시 요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일행이 급히 상갑판으로 달려 올라가 보니 최고 속력으로 질주하던 배가 거대한 빙산을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깨어진 부분은 수면 이하였고 선장은 물결이 잔잔한 상태에서라야 약 250마일 밖에 있는 항구까지의 항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나운 바람과 폭풍우는 계속해서 몰아쳤습니다. 시간은 꽤 흘렀고 흔들리는 배 속에서 잠을 못 이루던 디슨 장로는 벌떡 일어나 정장을 갖추고 갑판으로 올라 갔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홀로 선채로 그의 겸허한 마음과 불같은 신앙으로 그리고 성스러운 신권의 권능으로 파도와 물결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실혼 여섯 시간 후 배는 성 요한 항의 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디슨 장로의 약속한 바대로 단 한 사람의 생명도 다치지 않은 채로.

선주인 귀은씨가 배에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배에 물론 선교사가 함께 했음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열려할 것 하나도 없네. 우리 배에 물론 선교사를 태우고 다닌 지가 사십 년이나 되었지만 물론 선교사를 태운 배가 조난을 당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네!”

제 7 권 제10호

순 서

1971년 10월호

■ 권두언 : 압축으로부터 죠셉 필딩 스미스	1
쇠막대 해롤드 비이 리	4
오늘날 택하라 엔 엘돈 태너	10
친절한 줄스 버나딘 비티	15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음성 스펜서 더블류 킴볼	19
노하기를 더디하라 엘레에이 엘 크리스티안슨	23
잃어버린 대대 토마스 에스 몬슨	25
주님께서 지으신 집이라야 골든 비이 핑클리	28
■ 선교부장 메시지 :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부라운	30
■ 내외소식	31

성도의 벗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1년 10월 1일
통권 제75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우편번호 110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50원
1년 구독료(송료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표지설명 : 이 달의 표지로는
솔트레이크 시에 있는 역사적
인 건물인 물론 태버나클의 내
부에서 촬영한 사진을 2도 색
으로 복사한 것이다. 제141차
연차 대회에서 행한 몇 분의 연
설을 본문에 실었다.

암흑으로부터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텔레비나 라디오로 시청하시는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41차 연차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주께 간구하며 주를 경배하되 주를 진리와 영으로 경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얻고 주님의 교회를 운영하도록 주가 택하신 종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하신 여러분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곳 대회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뜻과 상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신앙과 간증을 기르고 주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종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의 교회입니다! 주는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하늘이 열려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은 바로 주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가 제시해 주신 진리를 믿고 그의 뜻대로 살겠다는 소망을 가져야 하며 그 소망을 이루겠다는 목적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교회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를 막론하고 주님의 뜻과 상반되는 교리나 믿음을 지지하거나 받아 들이거나 신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진리

를 탐구하며 그 뜻대로 믿고 행하겠다는 것을 지상의 소망으로 정리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경륜의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새롭게 전해 주셨으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여금 그 복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자로 삼으신 까닭에 나는 교회와 온 인류를 위하여 인간의 구원에 절대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복음 원리 몇 가지를 재론해 볼까 합니다. 이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원리는 바로 이때가 참 경륜의 시대에 계시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셨으며 전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영광을 입으신 승영의 반열에 계신 분임을 압니다. 우리는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세상의 만물을 지으셨으며 그분의 영의 자녀를 세상에 보내사 육신을 입게 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그의 자녀들이 그분과 같이 발전하여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율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첫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의 계획을 이행하도록 이미 천국 회의에서 예임되셨음을 알며 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통하여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



저오게 했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연유된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에서 인간을 구제하며 인간이 회개할 때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도록 스스로 죄값을 치루셨음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구원의 계획임을 증거합니다. 또한 주의 속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불사불멸로 일어서며 육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며 온전한 복음의 율법을 믿고 순종하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왕국에서 거하게 되리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모두를 이행한 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기초 위에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구원의 작업을 쌓아 올려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며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고 안수로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다음 그리스도를 굳게 따르고 계명을 지켜 끝까지 참을 때에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외쳐 전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계획 곧 복음의 계획이 우리의 첫 아비인 아담의 때로부터 계속해서 인류에게 계시로 전달되었음을 압니다. 이 계획은 곧 에녹과 노아에게로 알려졌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로 전해졌으며 미 대륙에 살던 고대 백성들에게도 전해졌으니 이 계획은 바로 절정의 때에 그리스도와 바울과 베드로와 옛 성도에 의하여 가르쳐졌던 계획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관련된 극히 중대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불신의 암흑과 참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이탈된 삶을 살아야 했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지혜로 또 다시 이 땅에 영원하고도 온전한 복음을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 이심을 알며 1820년에 아버지와 독생자가 그 앞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맡기셨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권세와 은사로 물문경을 번역하였고 하늘에서 보낸 천

사에게서 열쇠와 권능을 받았음을 압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구원의 교리를 그에게 계시해 주셨음을 압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지상에 건립된 하나님의 왕국이요 사람이 거룩한 신권의 권능과 구원의 참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유일의 처소임을 우리는 세상에 전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자가 되며 어디에 거하거나를 막론하고 사람이 정직하기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요셉 스미스는 선지자요 이 교회는 “오늘날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참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성 1:30)

어떤 사람이라도 암흑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빛이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구하는 자는 주의 사업이 참되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 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사도행전 10:34-35)라고 하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성실한 자에게 그의 영을 부으사 스스로 그것이 참진 리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의 도움으로, 주가 그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 땅 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왕국을 세우셨음을 알게 된 사람이 제실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이심을 압니다. 요셉 스미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하늘의 축복을 이 땅 위에 펼치는 사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주님의 손에 쓰이는 도구가 되어 왔음을 압니다.

교회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를 막론하고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의 충실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진리와 의를 갈구하는 자들이 모두 우리와 함께 회복된 복음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쇠막대

부대관장 헤롤드 비이 리
대관장단 제일보좌

● 이 훌륭한 대회 분위기가 제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되기를 간구합니다.

얼마 전에 콜롬비아 대학의 저명한 종교 심리학자는 월 스트리트 잡지에 “방황하는 자를 위한 위로”라는 이 세상의 현재의 상황을 풍미한 제목으로 글을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재비 아더 헬즈터그가 쓴 이 글에서 몇가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종교를 찾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의 공허를 느끼기 때문이며 인간이 그 공허를 메꾸지 못할 때 종교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성직자들이 세속화되면 될수록 세상은 급속히 타락의 벼랑으로 곤두박질할 것입니다 .

“.....결국 종교는 인간이 수천년을 두고 생각해 오던 문제 즉 인간이란 무엇이며 삶의 목

적은 이 우주에서 과연 인간이 점하는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문제를 정리하는 처소로 간주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인간의 의아의 근저에는 인간의 방황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의 갈등과 혼란이 궁극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종교의 진리가 과연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인지를 모릅니다만 정치 세계가 아닌 종교의 진리 안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에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고 저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며 저들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시켜 줄만한 방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나는 주전 600년경에 살았던 리하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본 시현에 관한 사실을 인용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성도들은 물론경의 이야기를 여러번 들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를 꼼꼼히 생각해 본다면 근대 사회의 동태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꿈, 아니 이 시현에서 선지자 리하이는 하늘 천사에 인도되어 어둡고 황량한 길로 나아가 영혼을 즐겁게 하는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가 있는 곳으로 난 곧고 좁은 길 옆으로 흐르는 강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강둑과 길 사이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물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쇠막대가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들관으로부터 열매가 달린 나무가 있는 쪽으로 몰려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길을 따라 앞으로 나 오는데 어두운 안개가 일기 시작하였고 심하게 되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고 더러운 깊은 강물로 떨어져 나갔고 많은 무리가 이상한 길로 떨어져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심한 어둠의 안개가 일어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끝까지 쇠막대를 움켜 잡고 있어서 끝내는 그 먹

음직스러운 열매를 따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강 건너 맞은 편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무 앞에 까지 안전하게 도착한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성경 역사에 언급되는 많은 고대 선지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선지자 지도자에게 이와같은 꿈이나 시현을 통하여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리하이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시현을 보여 주셨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열매가 달려있던 나무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구세주께서도 그의 전도사업 후반에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 16-17.)

시현에 보인 쇠막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이됩니다. 이 막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 곁에서 여인에게 설명해 주신 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요 4: 14)이라 하신 생명의 나무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현에 보였던 강 건너에서 손가락질 하며 조롱을 퍼붓던 자들은 하나님의 어린양의 사도들을 대적하려는 세상 사람으로 풀이되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에 의하면 조롱하던 자들은 세상의 지혜요 저들이 한 곳에 모여 쌓아 올린 건물은 “세상의 교만함”(니일 11, 12장 참조)이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과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인간을 아프게 하는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좁고 곧은 길을 가로질러 영생으로 인도하는 “쇠 막대”이며 이 쇠막대가 없다면 인간은 어둡고 황량한 길로 떨

쇠막대

어저 나가며 마침내는 파탄에 빠지게 되고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며 듣기 좋은” 온갖 것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개조 제13조 참조)

물문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오늘 날의 현상을 옛 선지자들은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몇 구절 더 읽어 드리겠으니 여러분께서는 우리들 주변의 상황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며 마음에 부푼 교만으로 인하여 화려한 옷을 입고서 시기하며 다투며 남을 원망하며 핍박하며 온갖 간악한 짓을 행하지 않는 자가 극히 적으리라는 것을 알며 참으로 너희 교회에 속한 자가 모두 마음의 교만으로 인하여 부패함을 아는도다 .

“……보라 이는 너희가 금전을 사랑하며 재물을 사랑하며 화려한 의복을 사랑하며 교회의 장식을 사랑하기를 가난하여 궁핍하며 병 들고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때 문이라”(물문서 8 : 36—37.)

사도 바울께서도 혼란의 때를 예견하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한하며 꾀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 3 : 2—5)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종교인을 자처하고 기독교인을 자처하며 누군가가 말했듯이 “경건을 도덕적인 진리에 대한 영감의 표준”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렇게들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천사가 리하이에게 이야기 해준 것과 같은 천국으로의 분명한 길을 약속해 주는 것이나 아니면 단순한 보조의 역할을 하느냐?”고.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리하이의 시현에서 보인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높이 자리잡고 서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인정하고 교회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대행인으로서 대우하는 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소위 스스로 너그럽다고 하는 자들이 많으며 이러한 사람들을 전 대관장님은 “자기의 편견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데저렛 출판사 1939년판 373 페이지) 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은 교회 교육 기관에 계신 분에게 교회 표준에 너그러운 관용을 가졌다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간증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명한 교육자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시었던 존 에이 윌소 박사님은 교회에서의 너그러운 관용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스스로를 너그러운 관용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원리를 소홀히 하는 자거나 소속된 단체의 이념을 무시하는 자일 것입니다……이러한 사람은 입으로는 자기가 소속한 단체의 회원임을 주장하면서도 그 단체의 근본 이념은 여기는 자일 것이며 그 근본 이념을 변경하므로써 만족하는 자일 것입니다. ………

“자기들의 종교는 변경되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하면서 너그러운 관용의 종교를 내세우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다음 윌소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너그럽다고 하거나 자기들의 교회가 너그럽다고 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들의 믿음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며 진리의 폭풍이 몰아칠 때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확증과 증거” 임프르브먼트 이라 제44권 [1941년] 609페이지)

리하이의 시현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어두운 안개에 눈이 멀었으면 서도 “쇠막대”를 단단히 움켜잡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직은 합당한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어 계시로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던 아브라함 링컨의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성경에서 읽고 이해하는 모든 것을 받아 들인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앙에 맡긴다.”

문명의 소용돌이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지구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인간은 어떻게 비롯되었는가 라는 등의 의문에 접하게 되었을 때 과학자요 성실한 교회 회원인 우리 교회의 모형제와 같은 자세로 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편안할 것이겠습니까. 한 자매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모두 다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형제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여덟 살 짜리 아이에게 원자학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최막대”를 움켜 잡는다면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최막대는 신앙이 역사될 때 저들을 이해의 문으로 인도하며 인간의 원리로 다져진 넓은 길로 저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배도와 불신앙의 더럽고 어두운 물로도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회원이신 어떤 저명한 과학자는 많은 학자들이 아담의 범법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를 자기들의 철학이나 학문으로 정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저들이 주님의 예언자에게 설명하셨으며 또 성스러운 곳에서는 보다 온전하게 전달된 주님의 역사를 믿기 보다는 인간의 철학을 따르려는 오만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 계셨던 때에도 이러한 의문과 반대를 일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혼란을 극복하고 안전에 이르는 길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자가 과연 누구일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

경전에 의하면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어 죄악과 속된 것을 버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또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로 기다리며 사도 시대에 주를 거역했던 자, 음탕한 여자가 마침내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죄가 모두 사함을 받아 내가 깨끗이 되었고 높은 곳에서부터 빛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나는 놀랍게도 의심이 결히고 확증이 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한 자의 인내를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돌이킨다는 것, 그것은 십일조 영수증과 회원 기록 카드 및 신전 추천서를 갖고 다닐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남을 비판하려는 속성을 극복하고 안으로 형성되는 죄악을 뿌리치며 외면으로 나타나는 것 보다는 내면의 약점을 제거하겠다는 무서운 결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는 남의 신앙과 믿음을 훼방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떠난 곳으로 유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전과 영생을 약속한 거룩한 구속주의 뜻이 담긴 “최막대”를 버리도록 사주하는 자에게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마 18:6.)

구세주께서는 친실한 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 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감수하고 영원한 운명을 벌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나쁜 모범으로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쇠막대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명령하였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전 8:9, 11~12.)

지극히 학식이 높고 교양이 높은 자들에게 선지자 야곱은 오늘날에도 거듭 들려주어야 할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이 학식을 얻으며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옳으로 밀어 내며, 저들이 스스로 아는 듯이 여기나니 저들의 지혜가 어리석도다.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니 저들은 필경 멸망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고를 따를진대 학식을 얻음이 유익할 것이나”(니이 9:28-29.)

우리는 오늘날 교회 회원이거나 비회원이거나 간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유능한 인물이 되며 학식을 많이 쌓은 많은 사람들과 과학 혹은 예술 분야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열의와 헌신에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역원의 직책을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들은 혹은 가정 복음 교육 교사로, 기타 신권회나 보조 조직의 교사로서, 자진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불우한 자를 위한 봉사를 하며 교회 회원이거나 비회원이거나를 막론하고 돌보며 홀로 된 사람이나 고아들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열의로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노라”(눅 19:9)고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생명의 나무로 인도하는 “쇠막대”를 단단하게 움켜잡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스스로를 버논 산의 은둔자”라고 한 죠지 무어의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버논 산은 물론 죠지 워싱턴

의 부모가 살던 옛 고장입니다.) 이 기사를 빌어 그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이십년을 버논 산에 살면서 나의 무지를 갈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자기의 지식이 지극히 보잘 것 없다고 느낄 때 비로소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기사에서 죠지 워싱턴에 관하여 자기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학교엘 간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은 유식한 사람일 수 있었읍니다. 그는 결코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읍니다.”

확신하던대 이러한 자세 속에 무엇인가를 이룩하겠다는 결의가 들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배우기를 그치고 어떤 사람은 선교 사업을 끝내고 나서부터 복음 공부하기를 그칩니다. 그런가하면 회원이거나 비회원이거나 간에 사회적으로 이름이 나면 바로 배우기를 중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죤지 무어가 워싱턴에 관하여 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애의 여건에 관계없이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 드와이트 디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런 글을 썼읍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일을 잘 처리하며, 성실하며, 외부의 충동에 쉽게 말려들지 아니하며, 남의 처지를 이해하고 늘 진실하며, 참된 자야말로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인기에 관계없이 마침내는 대성하여 놀라운 업적을 남길 사람입니다.

“그러한즉 바로 이것이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까닭이기도 한 것입니다.”(“지도력이란?” 1965년 6월호 리더스 다이제스트 54페이지.)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 참 교회가 서게 되면서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지시를 받게 되었고 고 부리감 에이치 로버트 형제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침례를 침수로서 받을 것이나 죄 사유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를 따진 것이 아니라

지난 옛 과오를 청산하고 반석을 닦으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거듭 놓는 것으로 정리함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사악한 이 세상의 흥계와 음모와 모함을 이겨낼 수 있는 안전한 보호의 방책을 발견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웃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준비된 구원의 계획은 영생으로 연결되는 곧고 좁은 길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며 수많은 혼란과 거부의 길을 헤쳐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마 7:14 참조.)

주님께서서는 교회의 초기에 교회 지도자들이 계명으로 받아 들이도록 계시로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리시어 여러 곳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물론 지도자들이 서로 “하늘 나라의 교리를 가르쳐야 하고……하나님 왕국에 관련된 모두를 가르쳐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교성 88:77-78 참조.)

그런 다음에 주는 우리가 탐구해야 할 광범위한 것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는 세상의 여러 분야에서도 무지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론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서는 믿음을 갖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와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교성 88:118.)

“사람이 어떻게 신앙으로 학문을 쌓느냐?”고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한분이 설명하신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합시다. 첫째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시험해보겠다는 요구를 가져야 하고 믿겠다는 요구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요구가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지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 봅시다. 그러면 씨가 뿌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 씨가 자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만인을 밝게 비치는 주님의 영을 거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서 얻어지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이해가 넓어지는 까닭에 선하게 될 것이며 리하이의 시현에 보였던 나무 열매처럼 먹음직스

럽고 맛있게 될 것입니다. (엘마 32 참조.)

어떤 영국 소설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발견한 자다”

“신앙에 의한 탐구” 그것이 곧 완숙한 지혜와 지식을 얻는 쉽고 빠른 길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인도하심을 구하느라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면 신앙에 의한 탐구를 하려면 성신의 뜻에 부합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온 정열을 다 쏟으며 성신의 확인을 받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며 거짓 가르침을 철저히 추방하여 이 세상에 혼란과 방황을 야기시키는 온갖 요소를 뿌리뽑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직도 바른 길을 찾지 못한 방황하는 자들이 안전을 얻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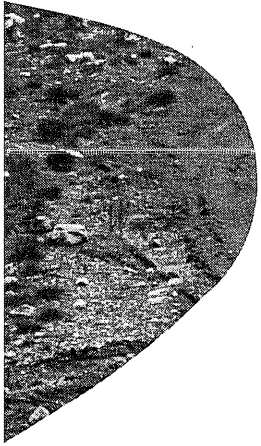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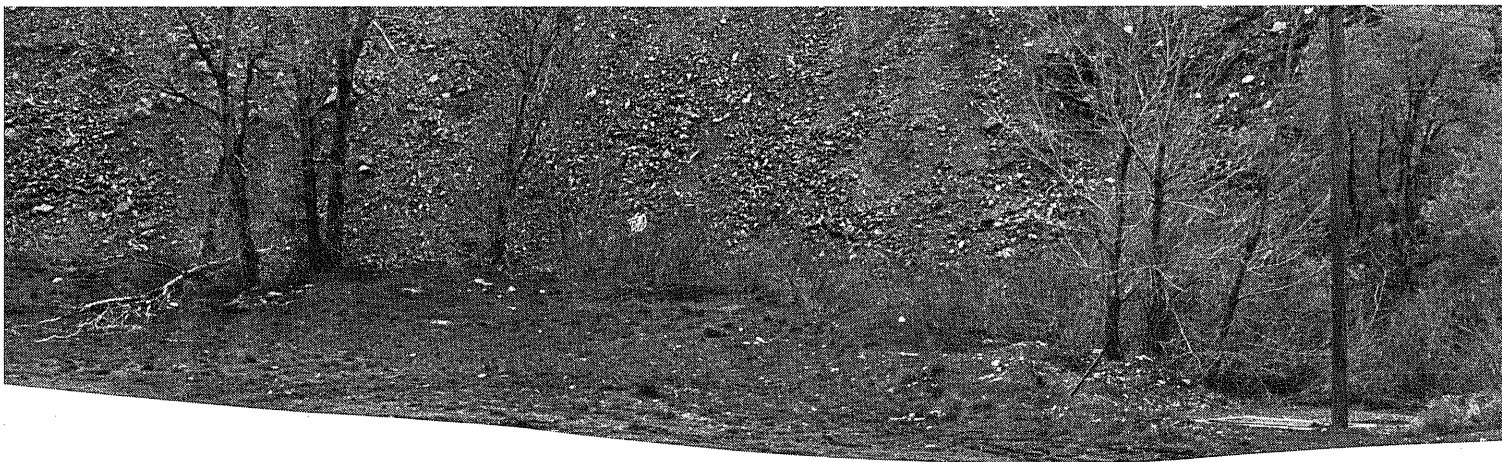
나는 나 스스로가 먼저 온 세상을 비치는 그리스도의 참 빛을 단단히 잡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바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기도와 신앙과 탐구로서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된 사실 즉 구세주께서 나사로를 잃은 슬픔에 통곡하고 서있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곧 “부활과 생명, 즉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말의 뜻을 알게 되기를 간구하는 바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 11:25-26.)

나는 내가 마르다나 옛 베드로처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마태 16:16)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주여 믿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분이시나이다.”(요한 11:27.)

나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 엄숙한 마음으로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하신 이름 받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오늘날 택하라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이보좌

● 최근, 우리들은 소위 마지막 강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는 강의를 맡는 사람이 강의의 주제를 정할 때 마치 마지막으로 강의를 맡는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역시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대회에서 말씀드릴 주제를 준비했으며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말하자면 마지막 강의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내가 택한 주제는 여호수아에서 언급된 것으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여호수아 24 : 15)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기고 난 즉시 여호수아는 110세로 세상을 떠났으니 말하자면 이것이 그가 남기고 떠난 작별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회에서 여러분의 훌륭한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물론 앞으로 이야기 하실 분의 말씀도 열심히 들겠지만 나는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이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속박에서 인도하여 이끈 경위를 잘 알고 있으며 애굽인들이 홍해에서 멸망된 가사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백성과 여리고 백성들의 손에 그 땅을 주님께서서 기업으로 주어 소유하게 하신 일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의 내용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후에 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

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놀라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여호수아 24 : 13—15, 20, 24) 우리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아름다운 옛 집과 고향을 떠나야 했던 개척자 조상에게서도 듣습니다. 저들은 말없이 험한 고난을 겪고 또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는 바 신조를 굽히지 아니하였고 고난이 극에 달하였을 때에나 평야를 가로 질러 힘든 여행을 할 때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 행복한 날 여행이 끝나 는 그 날이 오리니 슬픈 일과 고난은 없으며… 모든 것 잘되리” 저들은 주의 이름을 축복하였고 저들의 하나님을 축복했으며 계속하여 주를 섬기고 의롭게 행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셨으며 번성케 하셨습니다.

경전이나 세계 역사를 읽어 보면 개인이거나 사회거나 국가를 막론하고 주를 섬긴 자는—저를 개인의 명예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구원을 얻고 번성하였으나 주를 거역한 자들은 주의 진노를 사게 되고 멸망을 면치 못했음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경에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보라 이 땅은 복된 땅이라, 이 땅을 어느 백성이 차지하게 되던지 이 땅의 하나님 곧 나타나심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진대 속박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요 종된 곳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자유롭게 되리라”(이더서 2 : 12)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내세웠던 것과 똑같은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나 이더서에는 그 조건을 긍정적으로 설명하시어 이 땅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약속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여 패망으로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가르침에 좇아 살고 있습니까 ?

아놀드 토인비는 1948년에 출판된 고난의 문명(Civilization on Trial)을 빌어 문명의 성쇠를 그

리면서 특히 패퇴의 원인을 구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되풀이 되는 역사의 자취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시대는 확실히 경악의 시대라고 봅니다. 우리들의 현재의 지식으로 준비한 역사 연구 여론 조사에 의하면 역사는 서구 문명이 그 근거를 둔 인류 사회를 스프렌체로 형성하고 있다고 밝혀 졌으며 몇몇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미 소위 문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류 사회는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거나 현재 죽어가고 있는 역사를 자세히 연구해 보고 비교해 보면 역사의 쇠퇴와 파멸과 뒷걸음질의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누리는 이 역사의 장이 되풀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탈피할 수 없는 황량하고 내림박질하는 역사의 흐름에 당면하고 있는가?”

그는 일찌기 있었던 역사의 성공과 실패가 반드시 되풀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타고 났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나 자연이 부가해 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 어깨에 걸머져야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들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방안 중에 종교적인 방안이 궁극적인 것이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고 봅니다.”(뉴욕, 옥스포드 대학 지 38—40페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우리가 개인으로서 혹은 국가로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마땅히 반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산다면 경제적 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될 것이니 이는 십계명 기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므로서 모든 인류가 화평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이행할 수만 있다면 하는 식의 가정만으로는 더 향상할 수도 없다. 더 행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텍하라

우리는 여호와 정원의 중심부였던 소돔땅,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티레 시돈중 티레는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으며 구세주께서 방문하신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예루살렘이라던가 그 외의 도시와 그의 문명이 쇠퇴한 것은 그곳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사악하고 간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사실이 우리들의 주변에서 급격하게 물결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루디아드 킵플링의 유려한 시 “옛날에 알려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란 시는 문명의 극을 누리는 대영제국에 전하는 경고의 시였으며 사실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옛날에 알려진 조상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여,
주의 두려우신 팔 아래
우리는 다스림의 권세를 잡았나이다.
주 만군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잊습니다! 우리는 잊습니다!

“합성과 환희의 소리는 소멸되어 가고
왕과 대장은 떠나 갑니다.
그러나 주의 그 희생은
결허하고 상한 심령으로 함께 남았으니,
주 만군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잊습니다! 우리는 잊습니다!

“우리의 함대가 침몰한다는
아득한 외침
우리의 땅은 불길에 쌓이고
보라 우리의 모든 어제의 영광을
그리고 니느웨와 티레도!
만국을 심판하시되 우리는 건져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잊습니다! 우리는 잊습니다!

—찬송가 76장—

여기 이 노래에는 겸손함에는 힘이 따르고 교만함에는 사악함이 따른다는 좋은 교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입니다. 우리들이 성취한 업적을 재평가하여 과연 우리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봅시다. 인류는 과학의 분야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인간을 달에 보내기도 했고 핵폭탄을 개발했으며 전쟁의 수단도 발전시켰으나 과연 평화를 위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습니까? 인간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현재 사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리고 있고, 신문이나 기타 매스컴을 통하여 듣고 있듯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어겨 마침내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도둑질, 방화, 약탈, 폭음, 방탕으로 인한 사명과 불행, 주일날의 교회는 텅 비되 큰 길과 상점과 공원은 붐비는 모습 너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나 위의 열거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죄목으로 우리가 체포되는 경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확증이 녀뵈하겠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 왔습니다. 무지한 것을 내세워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와 가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려면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사는 방법을 바꾸며 주를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도행전 2:38 참조) 우리는 개인으로서 각각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집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새 활력이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훌륭하게 될지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쟁도 없을 것이며 오직 천국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쟁에 투입되는 돈은 궁핍하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돕는 값진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악함으로 하여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 의로운 사람이 오십만 되거든 멸망을 면하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가 나중에 열만 되거든 면하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주는 쾌히 응낙하셨지만 의로운 자 열을 찾을 길이 없었고 끝내 성읍은 화를 입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로운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성읍과 나라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주를 섬길 것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태 6:24)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그것이 가정의 질서나 경제적인 수입 혹은 우리들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어떠한 여건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생활에 필요로 하는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돌아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굳게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가르친대로 복음의 원리를 지키며 살면서 주를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축복으로 얻게 되고 세상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을 축복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보다 훌륭한 가정을 이루게 되며 주를 부인하고 주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사회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주위의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더 행복하게 살며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영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이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

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 6:19-21)

나는 누가이라던지 기념비 따위의 녹슬고 부패하는 물건에 대한 인간의 소유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링컨 기념관의 부식에 대한 기사를 뉴스란에서 읽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몸을 바치신 분들로서 우리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과 관련이 되는 기사는 확실히 국민 모두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기사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내려가면 석회석 벽과 사십 팔년전 대리석 기념상의 부패 색채의 부식, 지층이 가라 앉음으로서 생기는 변조 천정을 차지하고 있는 수백만의 거미와 날팔이 등의 세세한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지상에 쌓아두는 재물에 부패와 동록이 따른다는 좋은 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나 명소에 대한 경의를 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임무를 성실하게 지켜야 하겠다는 결의를 굳게 가져야 할 것이며 세월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곳에 재물을 쌓아둘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헨리 밴 다이크의 이야기를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호화 저택”이라는 글에서 어떤 부자가 으리으리한 호화 저택에서 사는데 하늘에 가보니 그곳에는 작은 오두막을 자기가 마련했을 뿐이라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재물을 오직 하늘에 쌓으며 살았던 까닭에 천국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마련된 호화로운 저택을 보고 놀란다는 내용입니다. (마태 6:20참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많은 것을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발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낭비해야 하겠습니까? 선하게 행하겠습니까 악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교회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헛되게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재물을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에 몰두 할 수 없습니다. 人生의 正道를 마땅히 걸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택하라

이것은 물론 인간이 철두철미 악하다던가 선하다
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환경에 따라 인간은 좌
우되고 하나님을 택하느냐 혹은 재물을 택하느냐
로 인생의 양상이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
속된 온전한 축복과 기쁨을 얻으려면 부모는 먼저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쳐야 할 것입
니다. 주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
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
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
러 있느니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
니라” (교성 68 : 25, 28)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 교회
는 회원에게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경건하게 운영
하고 세미나리에 참석케 하며 종교학원 학교 대학
교에 참석할 것을 권고하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주를 섬기도록 준비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임무와 책임을 절대로 게을리 해서
는 안되겠습니다.

비이 와이 유 대학의 어네스트 엘 윌킨슨 박사가
여러 해를 사귀어 온 절친한 친구가 판상동맥 혈
전증의 증세로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쏘트 레이
크 시에 있는 엘 디이 에스 병원 혈전증 치료과로
급히 달려 갔었다는 이야기를 펍 인상 깊게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침대로 다가 서자 그는 내 손을 움켜 잡고는 산소
공급 마스크를 통해 고통스러운 호흡을 하면서도
이렇게 더듬더듬 이야기 했습니다. ‘아 박사!
나를 구할 수 있겠오? 하고 싶으면서도 손을 매
지 못했던 일이 너무나 많소’ 라고 했습니다.

“면동이 터 올 때까지 모든 현대 의료 수단을 동
원하여 수술 작업을 계속 했지만 나의 친구가 회
생하지 못할 것 같은 심증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와 그때의 상황에
잠시 머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동가 입니까? 얼마나 많
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결정을 지연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과 죽음의 다리를 가
로 질러 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요
구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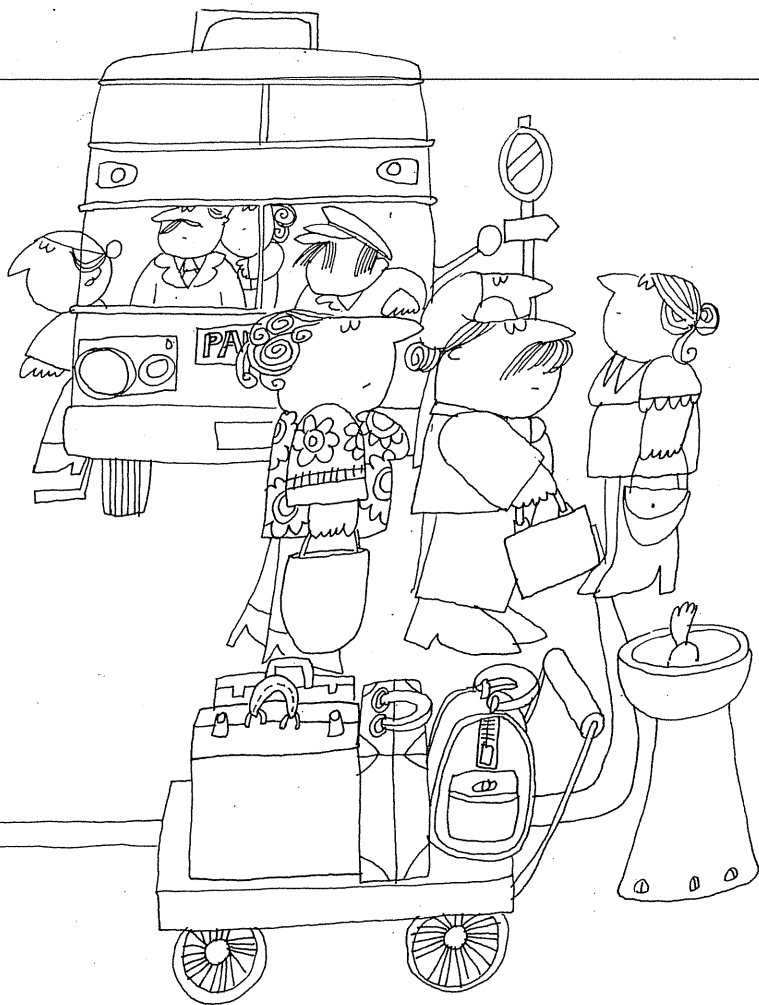
참으로 심각하고 절실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
두 삶과 죽음의 다리 근처에 도달해 있습니다. 스
스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들은 얼마
나 다행스럽습니까? 우리의 우리 인생의 행로를
정할 수 있고 운명을 정하며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영광스럽지 않음
니까? 아직 선택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선택
은 우리가 해야 하며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정하
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알게 된 것을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시며 “이 세상을 이
처럼 사랑하시는 까닭에 독생자를 주시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하신 것
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3 : 16-17)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
리셨고 우리가 구원과 온전한 기쁨을 쟁취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리차드 엘 이반
스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
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쫓아 내시거나 우리와
다투어 우리를 억누르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
리를 해치려는 박해자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
랑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와 행복과 영원한 발전을
바라고 계시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최
선을 다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두를
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우리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섬기어 주가 약속하신 축
복을 누리게 기쁨을 허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아멘. ○



친절한 줄스

버나딘 비티

● 줄스가 아주 조그맣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그의 우렁차고 행복한 음성은 그가 사는 작은 불란서 마을이 끝에서 저 끝까지 들렸다.

그의 음성이 어떤 일인지 오늘은 보통때 보다도 더 크고 행복하게 들렸다. “피에르! 피에르!” 그는 바로 옆집에 사는 친한 친구를 불렀다. “나는 이베뜨 아주머니를 만나러 파리에 가게 됐어!”

함께 어울려 놀던 피에르, 모리쓰, 그리고 라울이 뛰어 왔다.

“언제 떠나니?” 검고 큰 눈을 빛내며 라울이 물었다.

“내일!” 줄스는 기쁜 소리로 대답했다.

피에르는 걱정이라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도시 사람들은 친절하지 않더라.” “내가 파리에 갔을 때는 말을 거는 사람도 없던걸.”

“친구를 사귀려고 해봤니?” 줄스가 물었다.

피에르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공손하게 물어도 대답할 시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사귄 수가 있겠니?”

“염려하지 마라 줄스” 라울이 달래듯 이야기 했다. “가서 재미있는 시간을 갖게 될거다.”

“그럼” 피에르도 동의했다. “혁명 기념일엔 성대한

시가 행진도 보게 될걸.”

“그리고 에펠 탑도 볼거야 인형극도 보고!” 모리쓰도 한 마디 했다.

“와!” 줄스는 함성을 울렸지만 그의 음성은 평소와 같이 행복하지를 못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는 미소를 머금었다. 그렇다, 피에르가 틀렸을지 모른다. 파리와 같은 도시의 사람들이 모두 다 불친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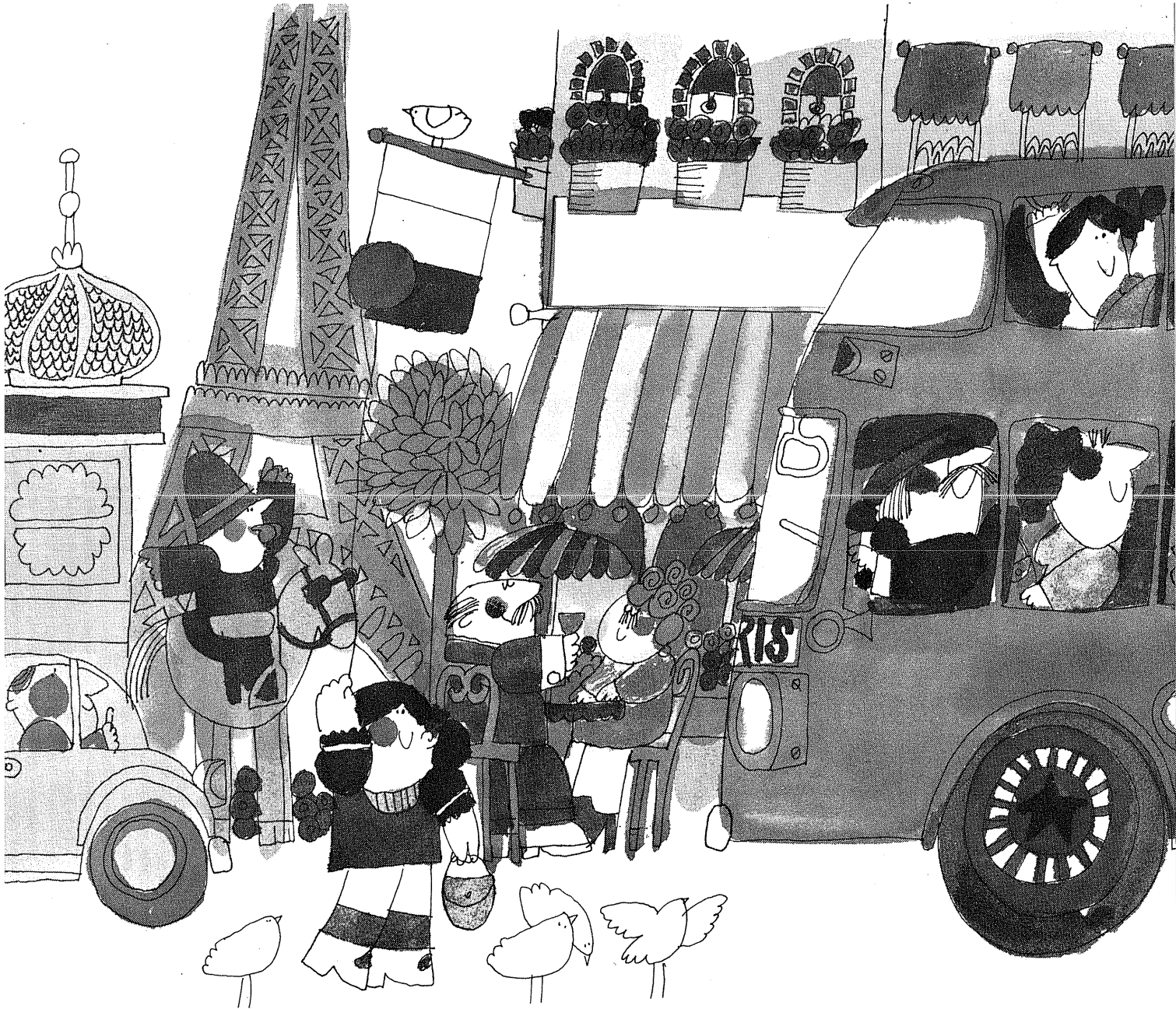
다음 날 아침 파리행 버스에 오른 줄스는 어쩔 수 없이 피에르의 말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도 자기를 쳐다 보거나 이야기를 걸려고 하지 않았다. 줄스는 한 손에 옷 가방을 들고 선채로 또 한 손에는 이베뜨 아주머니께 드릴 신선한 채소 봉지를 추켜 올리며 누군가가 상대해 주기를 기다렸다.

“이리 앉으렴” 운전수가 검은 의상을 입은 좀 무뚝뚝해 보이는 여인의 뒷 자리를 가리키며 권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줄스의 큰 음성은 버스 안을 진동했다.

사람들이 모두 놀란 눈으로 쳐다 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줄스는 옆 사람에게 조용하게 인사를 건네려고 했지만 그의 음성은 마치 큰 종을 울리는 소리 같았다.



옆 자리의 부인은 싸늘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끄덕했다. 줄스가 발돋움을 하여 버스 선반에 짐을 얹으려는데 마침 버스가 움푹 패인 곳을 지나게 되었다 “어이쿠!” 줄스는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감자, 배추, 시금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검정 옷을 입은 무뚝뚝해 보이던 아주머니의 표정이 근심으로 일변했다. “어디 다치지 않았니?” 부인이 물었다.

“안 다쳤어요 부인.” 줄스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렇지만요,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신 채소를 온통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흩어진 양파를 주워 모으며 큰 소리로 호탕하게 웃었다.

버스 뒷 쪽에서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폭소가 터지고 말았다.

“이 채소는 이베트 아주머니께 드릴 거랍니다. 파

리에 살고 계신데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는 맞은편에 앉은 검은 수염을 기른 어른에게 소상하게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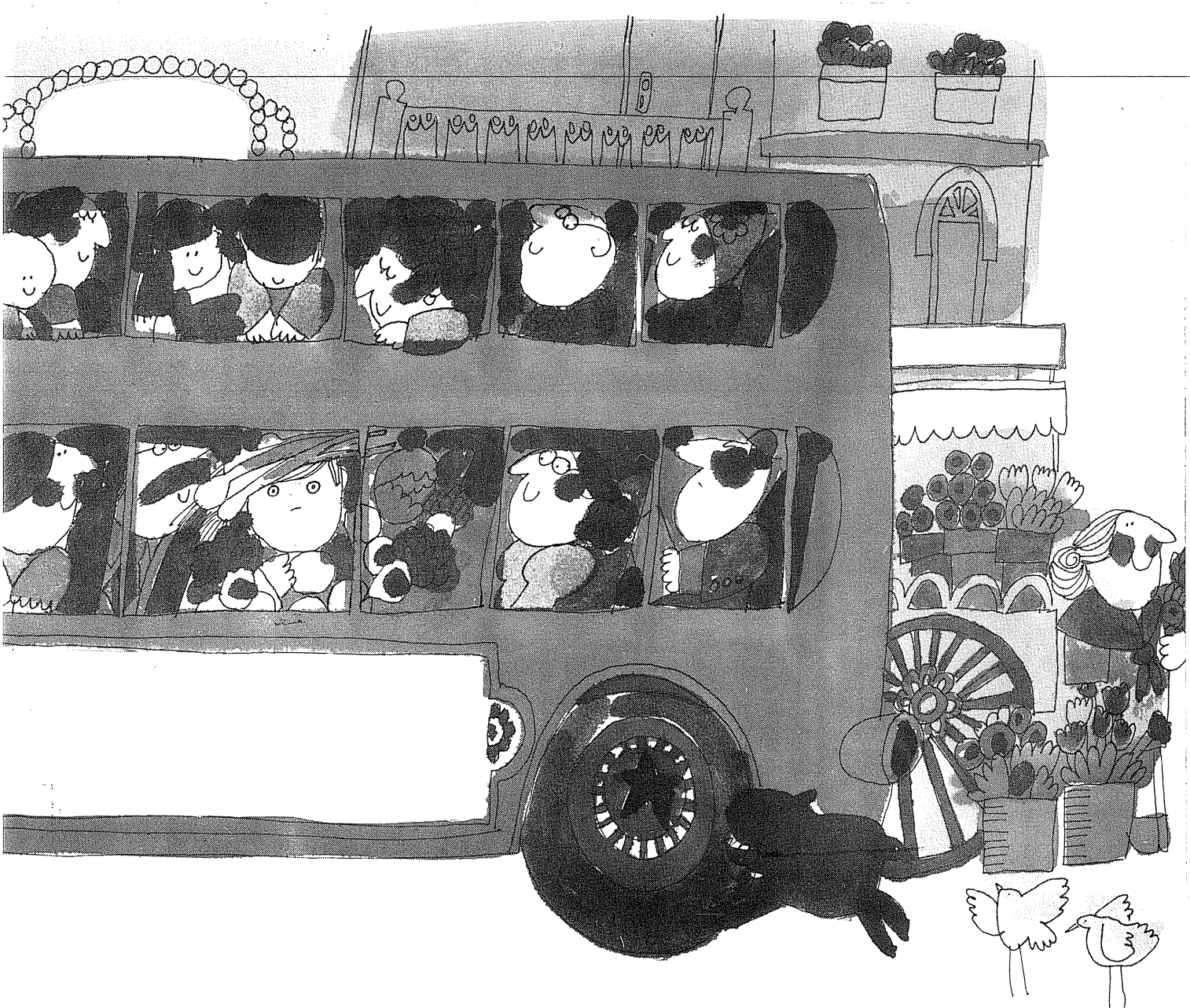
“파리가 처음이냐?” 그 사람은 싱글싱글 웃으면서 물었다.

“그렇습니다, 아저씨.” 줄스의 상쾌한 음성이 들려왔다.

뒤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는 흩어진 배추를 주워 주었다. “정말 도회지에서는 보기 힘든 싱싱한 배추로구나” 그 부인이 말했다.

“가지세요 아주머니!” 줄스는 선선히 제의했다.

버스 안이 웅성웅성하더니 모두들 서로 웃고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모두들 줄스에게 꼭 보아야 할 명소를 하나씩 알려 주었다. 운전수 아저씨도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파리 근교에 도착했음을 알려 주었다.



“야 과연” 줄스의 목소리는 마치 기관차 화통 소리 같았다. “파리가 엄청나게 크군요!”

“아니 네 목소리 보다는 작단다, 얘야.” 그의 옆자리에 앉은 드몬 부인이 웃으면서 말해 주었다.

줄스는 조금 멈칫했다. “이야기를 조용히 하려고 늘 애를 쓰는데로 가끔 잊어버리거든요.”

“네 목소리는 참 유쾌하고 행복스럽게 들린다!” 개로스 부인이 줄스가 준 배추를 앞에 안고 한 마디 거들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맞은 편에 앉은 샤르베씨가 말했다. “옛 친구를 만났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정거장에 버스가 도착하여 정거하였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변해 버리고 말았다! 아무도 다시는 미소를 짓지 않는 것이다. 모두들 제갈길 채비를 차리며 짐을 챙겨 들고는 서로 떠밀면서 입구로

몰려 갔다. 잘 가라는 말 한 마디도 없이 모두들 훌훌 떠나갔고 텅빈 버스에 줄스 혼자 남게 되었다. 짐을 정리해 들고 그는 버스에서 내려 이베뜨 아주머니가 나오셨나 살펴 보았다. 아주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줄스의 등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급히 정류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은 말할 수 없이 혼잡하였고 아주머니는 그곳에도 계시지 않았다.

줄스는 어머니가 이베뜨 아주머니 맥 전화 번호를 적어주신 종이 쪽지를 찾았다. 그는 급히 지나가는 신사의 팔을 잡았다. 그 신사는 상을 찡그리고 팔을 뿌리치더니 그냥 갈 길을 갔다. 줄스는 한숨을 쉬었다. 피에르가 옳았다! 도시 사람들은 불친절한거야!

줄스는 짐차를 끌고 가는 짐꾼에게로 달려갔다. “좀 도와 주시겠어요?” 그는 물었다. 그의 화통같은 목소리가 온통 정류소 안을 울리는 것 같았다. “저, 저의

아주머니 댁에 전화를 하고 싶습니다.”

“줄스!” 소리는 줄스의 오른 쪽에서 들려왔다.

“줄스!” 왼쪽에서도 들려왔다.

“쫄쫄 딱하기도 하지!”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줄스의 가슴은 사베르씨, 드몬 부인, 캐로스 부인을 보는 순간 기쁨으로 방망이질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두분 부인 중 한분이 줄스를 그의 아주머니 댁에 까지 안내해 줄줄 알았읍니다” 사베르씨는 두 부인을 꾸짖는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는 선생님께서 안내하실 줄 알았어요!” 캐로스 부인도 한마디 했다.

드몬드 부인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줄스야, 걱정 마라 이베뜨 아주마 댁을 우리가 찾아 줄테니까.”

“저기!” 줄스는 즐거운 함성을 울리면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부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베뜨 아주머니!”

“타고 오던 택시가 교통에 막혀서,” 이베뜨 아주머니는 숨이 턱에 차서 설명을 하셨다. “내가 안 나오

는 줄 알고 펍 걱정을 했지?”

“처음엔 그랬어요.” 줄스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알게 된 분들이 저를 도우러 오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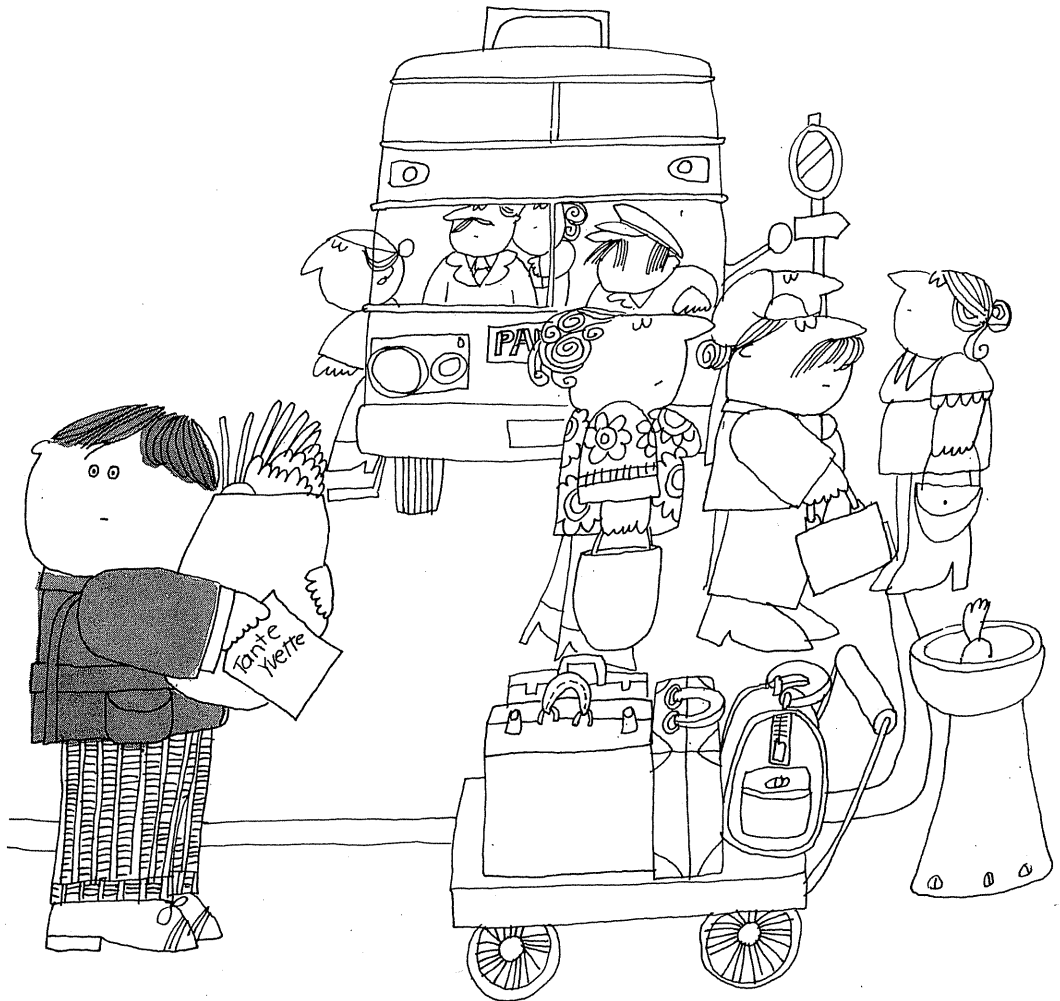
줄스는 이베뜨 아주머니를 버스에서 알게 된 분들에게 소개했다.

사베르씨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 모두를 내일 점심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모여서 클럽을 만들어 우리 마을을 처음 찾는 분들을 돕도록 합시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드몬드 부인이 소리쳤다.

“와! 그 클럽의 이름은 친절한 줄스라고 합시다” 캐로스 부인이 제의했다.

줄스는 너무도 벅찬 행복을 맛보며 한 마디도 입을 열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오늘밤 피에르에게 편지를 쓰리라, 편지로 피에르가 옳지 않았다고 전해야지. 그는 혼자 생각했다. 친구는 어디든지 있는거야! ○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음성

스펜서 더블류 킴블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서리

●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진실로 이제 방금 스미스 대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동의합니다. 증거하거니와 그분은 참으로 오늘날 이 땅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이십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며 오늘과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자 할 때 우리는 다만 잠시 과거를 돌이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요란한 풍문으로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같이 너희도 험로서 알아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고전 14:8-10)

바울의 이 말씀은 참으로 인상적이고도 강경한 말씀이었으며 여러 세기를 두고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는 가혹하고 거칠게 들리며 어떤 소리는 달콤하고 또 부드럽게 들립니다.

바울은 계시의 영으로 이 말일에 벌어질 일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좃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서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딤후 4:1-3.)

또 다른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절박한 음성이 외친 바 “귀신의 가르침”이라 하였고 이 세상에는 죄도 없고 악마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들은 또 이르기를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하며 마치 홍수가 물려 올 것을 전혀 염려하지 않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악한 영이 부르짖는 소리는 속된 환락과 채울 수 없는 육체의 만족을 사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옛날 니파이인 선지자들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던 때와 아주 흡사합

니다. “……의인들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너희는 이미 완전히 멸망하였으리라.”(엘 10:22) 물론 이 세상에는 성실하게 살며 모든 계명을 빠짐 없이 지켜 이 세상을 멸망으로부터 지키며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도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지나고 있는 것이며 황량하고 두렵기 그지 없습니다. 어둔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밤의 장막은 우리를 덮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외친 분명한 음성을 들어 봅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절제하지 못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1-4)

어떤 유명한 작가는 오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 가지가 분명하다. 우리에게는 평안함과 너그러움의 세월이 다시는 허가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적을 대면하고 있다. 무자비한 적 곧, 사악함과 강제함……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살기가 등등한 시대를 살고있다고.” (첸킨 로이드 존스 휴먼 이벤트 1961년 11월 24일)

최근에 길에 나가서 “성적인 순결이 퇴폐적이나”고 하는 질문으로 여론 조사를 해 보았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도덕의 표준은 이미 변했다. 순결은 필요없으며 사랑만이 문제다” “순결이란 듣기만 해도 따분하다” “오늘날 덕스러움을 갖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등등이었고 어떤 소녀는 “순결이란 낡은 관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명한 시대가 인간의 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자유요 법을 어기는 것도 자유요 성병에 걸리는 것도 자유요 자기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자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자유요 진정한 자유로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깊은 부패의 심연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거한 죄 하나 하나가 이 시대에

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는 모두 “자기를 만의 자기를 사랑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주하며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죄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며 부모가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정을 저버리고 있으며 오직 자기 개인의 욕구를 채우려 할 뿐 가정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애정을 배반하여 결혼을 파기하고 파경에 이르는 사람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조는 마치 솟아오르는 기름 불기둥 같이 번지고 있으며 우리의 주변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마저도 갖고 있지 않으며 아내나 자식에 대한 사랑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금욕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고 금욕이란 말을 이 세상은 이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전에는 이 단어를 특히 성적인 충동에 대한 자기 조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선한 사람들이 혼탁한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남녀를 막론하고 임신을 피하는 수술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으며 그렇게 하므로서 임신을 피하고 산아를 제한하라는 세상의 요구에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고 또 양육하기란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만 쉬운 일이 발전과 성장을 가져다 준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녀를 적게 가지라고 고향을 치고 있으며 이에 응하고자 온갖 약을 쓰며 끔찍한 인공 유산도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스럽게도 산아 제한의 제창자들은 한번도 금욕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같이 보이지를 않으니 어찌 된 일일까요!

도서관에는 온통 속킹한 사진이 가득한 책으로 분주하며 인간이 어떻게 동물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열을 올릴 뿐 금욕의 참철학을 펼치는 서적은 극히 드뭅니다. “인생은 성이다”라고 부르짖는 자들은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하여 “성적인 충족”을 얻는데 노력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가정, 영생까지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속된 욕망에서 깨어나 오직 청결하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도록 촉구하는 인쇄물도 더 나와야 하겠고 이를 권장하는 말씀도 도처에서 끊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금욕과 절제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친히 이를 실천하였고 여러 해를 실천하며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저의가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전 7:7~8.)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

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라”(고전 9:27.)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기 보다 환락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바로 오늘날의 성에 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딤후 3:6)라고 저들을 꾸짖었습니다.

이제 불사불멸은 한 때 경건했던 사람들로 부터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방탕하는 입이 여하한 것에도 선한 것을 낳지 못했으며 이에 관하여 바울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딤후 5:6)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쫓겨 나게 되리라”(교성 22:24)

세상에서 제법 무엇을 익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는 곧 세상 만사를 다 터득했다고 생각하기가 일쑤며 이러한 사람들 곧 교육자, 실업가, 심리학자, 작가, 영화배우, 법률가 등의 말을 들어보면 자못 거창하고 날카롭습니다.

이러한 예고이즘과 자만은 종종 거짓의 사주를 받습니다. “간악한 자의 간계를 받아들인 자”를 그린 니파이인 선지자의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하나님의 권고를 따를진대 학식을 얻음이 유익할 것이나”(니이 9:29.)

“……저들이 학식을 얻음에 스스로 현명하다 생각하여……저들이 스스로 아는 듯이 여기나니 저들의 지혜가 어리석도다. ……저들은 필경 멸망하리로다”(니이 9:28.)

베드로가 간악한 자들을 금수와 같다고 하며 저들 스스로의 간악함으로 멸망되리라고 한 말씀도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저들을 “점과 흙이 있는 자요”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는 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라 하였고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을 쫓는 자”라고 일컬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13-22참조.)

베드로를 지지하는 디도서에서 기록된 바울의 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디도서 1:15-16.)

젊은이들의 갈등에 관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물론 저들의 방종과 불순종과 신앙의 타락을 옹기 받아 들이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저들의 타락에 대한 책임의 일부분은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질서에 충실치 못한 모범을 보여준

저들의 부모가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저들의 타락의 일부는 강단에서 전달된 강의에 연유된 것도 있고, 편집실이 책임져야 할 것도 있으며 방송국이 책임져야 할 것도 있으며 성직자가 책임져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발언은 저들의 잘못과 사악함을 대적하여 지도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여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사 24 : 2) 여기에 언급된 “제사장”이란 단어는 모든 종교계의 지도자들을 의미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사 24 : 5) 소란한 군중의 여러 가지 외침 가운데는 인간의 타락을 부채질하는 성직자들의 음성도 섞여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인간의 타락하려는 욕심을 유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음성도 있습니다. 진실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신조를 굳게 움켜잡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요구에 휩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에 기재되었던 기사를 여기 인용해 보겠습니다.

“많은 교인이 마리아나의 사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그저 임기 응변으로 처리하고 있다” (1968년 8월 16일자 타임지)

이들은 “시대의 조류”에 영합한다는 입장을 취하므로서 모든 죄악을 은폐시키려는 것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확한 원리를 구태여 성 문제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런던-브리티쉬 평의회 교회)

너무도 위의 견해와는 상반되는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 봅시다. 베드로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압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좃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훼방을 받을 것이요”(벧후 2 : 1-2)

바로 이번 달에 언론계에서는 “남녀 간의 옛 풍속을 부흥시켜서 미혼의 젊은 남녀로 하여금 교회의 축복을 받으며 함께 잠자리에 들게 하며 이를 도덕적인 표준으로도 간음으로 인정치 않는” 유명한 어느 교회 대표자의 논지를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론가의 음성을 들어 보기로 합시다.

다. “최근 영화 분과 위원회는 앞으로는 동성애 장면이나 선정적인 장면을 읊길 때 조심하겠다고 발표했다.우리는 우리의 거실에 엮보는 안경을 연결한 채로 우리의 젊은이로 하여금 음란과 냉소의 나락으로 잡아 당기고 있다...”(제이 엘 존슨)

아주 최근의 간행물의 기사를 인용해 봅니다.

“모 교회에서는 오늘 대회에서 성인으로 동성애 및 행위를 범해도 계율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제의를 인정받았다.....”

독자가 많은 어느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모 교회 교직자들이 함께 모여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규율이 완화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교직자의 일단과 그들의 아내가 동성애 구룹이 베푼 연회에 초대되었는데 이 연회는 레스비언의 프로를 결들인 동성애 구룹의 자금 조달 연회였다고 한다. 이 잡지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실었다.

“.....항만 근처의 학교는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그 학교에 동성애에 관련된 교사나 직원이 발견될 때는 즉시 학교를 폐쇄하며 관련자는 주법에 의거해임 조치한다”(1967년 2월 13일자 뉴스 위크)

위에 언급한 교직자들은 이렇게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성이 같은 사람들끼리도 사랑을 서로 표시할 수 있으며 성교섭을 가짐으로서 그 사랑을 서로 깊게 할 수 있다.”(1967년 2월 13일자 뉴스위크)

듣기만 해도 흉칙스런 소리이며—소란하고 야비한 소리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헛된 소리를 할까요? 이렇게 즐겁다는 화제를 다루는 사람에게 우리는 왜 회개를 권합니까? 누군가가 이 세상의 망명됨을 경고하고 사는 모습을 바꾸게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교황의 시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악덕이란 참으로 끔찍하고

두려운 괴물일세

때로는 저주하면서도 필요로 하게 되는,

그리고 또 자주 보게 되는,

그리하여 자주 대하면서

낮이 익어

처음에는 그런대로 견디고

그 다음에는 연민을 품고

그리고는 열싸 안는 것”

(알렉산더 교황 “인간에 관하여” 수필 그 서한 제135행에서)

어쨌든 타락한 저들에 관하여 누군가가 함성을 울려야 할 것이며 우리는 결코 묵묵히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 위대한 모세에게는 이러한 것이 죽음을 상으로 받을 만큼의 가증함이었으며 타락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자연을 거역한 비인간적인 신성을 모독한 간사한 인간의 저열한 격정이며 하늘 왕국으로 통하는 모든 문을 폐쇄할만한 간악함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음란한 행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작가와 종교 지도자와 기타 기성의 인사들이 그러한 범법 행위를 오히려 두둔하려 할 때 우리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암흑과 혼란에 봉착한 젊은 세대를 인도할 수가 있으며 저들에게 어느 모범을 따르라고 할 수가 있겠으며 어느 것이 안전한 항구요 또 어떤 것이 믿어도 좋을 만큼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의 혼란을 용납하는 자는 성의 혼란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자”라고 심리학자 소로킨은 말했습니다.

도대체 죄라는 단어가 오래도록 사용되지도 않았고 죄를 다스리는 가르침이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옛날에 있었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과는 주장을 달리하는 말씀을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전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한 집단의 생물입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동물이며 동물 이상의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불사불멸의 영이 거하는 신전이며 인간이 담아가지고 있는 영은 육체가 더럽혀질 때 더러워 지기도 합니다. 또한 순결의 법이 깨어질 때 영혼은 더러워 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이 문명은 순결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 졌습니다. 물론 결혼의 거룩함과 가정의 신성이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파괴할 때 기독교 신봉자는 금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가족 관계는 영원히 계속 됩니다. 가족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또 거룩한 인간 관계인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1938년 10월 대회보고 137페이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이 전하는 움직일 수 없는 경고의 음성을 들어 봅시다.

“.....성적인 범죄—남녀간의 불의한 성 교섭—는 그 끔찍함이 살인 다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음행이나 간음이나 매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치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계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과는 주님께서 밝히신 처벌이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이 이러한 죄를 심판하는 때가 틀림없이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를 빙자하거나 신문 잡지를 통해서 간악한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자에게 대하여

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죄과를 묵인하고 이러한 병종을 인간 육구의 충족이라고—마치 기아나 목마름을 채우는 쯤의—하는 자의 말하는 혀는 추악한 것입니다. 저들의 주장은 과멸을 자초하며 저들의 지혜는 거짓의 아비로부터 비롯되었음이 입증될 것입니다.”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1942년 11월호 이라지 686 페이지)

그러면 다시 바울의 준엄한 음성을 다시 듣기로 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전 3 : 16—17.)

거룩하신 이의 음성은 이렇게 울렸읍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에게 명하노니 네 이웃의 처를 탐내지 말며 이웃의 생명을 노리지 말라.” (교성 19 : 24—25

결혼과 관계없는 일체의 성 교섭은 신전의 문을 잠그게 하며 영원한 삶의 떠를 자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대회 말씀에 전해 듣는 모든 사람을 푸른 정원으로 초대하며 즐거운 나무 그늘로 초대하며 번치않는 진리의 곳으로 초대하는 바입니다.

와서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는 번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번치 않으십니다. 그의 교회는 굳게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죄가 묵인되지 않으나 신실한 회개로서 사함을 상으로 얻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는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명하노라. 회개하라.....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너희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알지 못하니 참으로 그러하다. 너희는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하는 도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 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피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려서려고 까지 하게 하였느니라.” (교성 19 : 15—18.)

주님의 종이 외치는 음성이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바입니다. 아멘. ○



자제는 영적인 생활의 근본이다

엘레에이 엘 크리스티안슨
십이사도 보조

노하기를 더디하라

●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 매리온 지 롬니 형제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동의하며 오늘 아침 예언자 지도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도 절대적으로 동의하며 그분의 말씀을 받아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전해 주신 여러분의 말씀에도 동의를 전하는 바입니다.

지금 저는 잠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 모두에게 관련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별로 복잡하지 않은 주제입니다만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낮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언 16:32)고 말씀했을 때 그는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 자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한 분도 계십니다. “인간의 치수는 과연 얼마나 큰 일이 그를 화나게 할 수 있는가로 결정된다” 과연 참된 이야기가 아닙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일로 화를 낸다는 것은 그의 인격의 모자람과 유치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중과 함께 할 때—아니 때로는 홀로 있을 때에도 우리는 종종 비위를 거슬리게 됩니다. 우리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는 외부로 부터의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의 됴됨이와 인격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유쾌한 성품을 기르며 늘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품을 갖기 위해서는 쉽게 노여움을 들어내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결코 화를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 아니라 좀더 완속해져서 정말 어려운 지경에서 현명하게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속에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예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결코 노여움은 훌륭한 것을 생성해 내지 않습니다. 노여움은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해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격렬한 노여움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파괴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되면 논리가 흔들리게 되고 그 틈으로 노여움이 달려 들어옵니다. 화가 잔뜩 난 채로 어떤 일의 결정을 내리려 하는 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로 배를 끌어 내려는 선장만큼이나 바보스럽고 어리석다고 하겠습니까. 그 사나운 순간에 다만 부상과 상처를 입게 될 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일단 노여움이 끓어오르면 정상의 판단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가진 사람이 화난 사람과 마주했을 때는 훨씬 유리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옳은 일을 할 때는 쉽게 이성을 잃지 않으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거의 매일 스스로 주체하지 못할 만큼 화를 내는 모습을 여기 저기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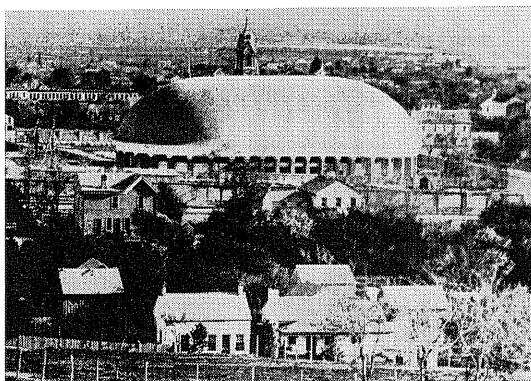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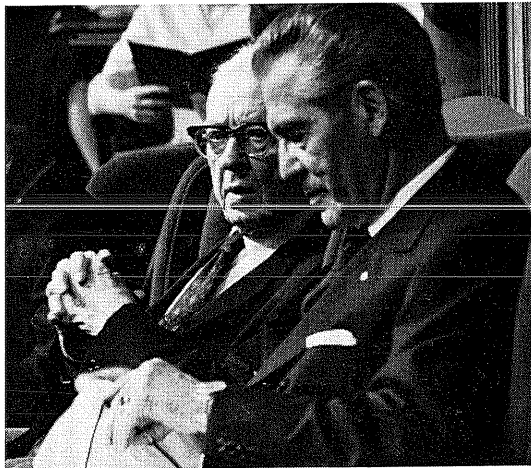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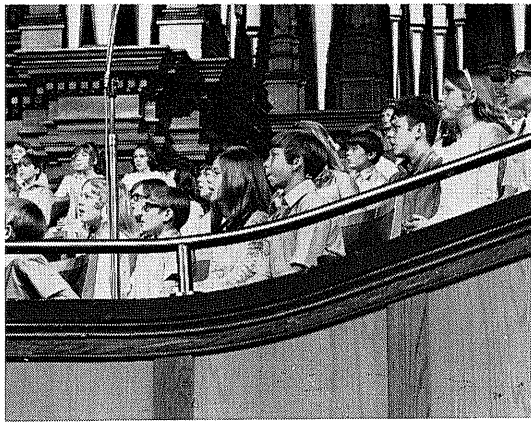
용서함의 기적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님은 “노여움은 정신적인 죄”이며 그것이 정리되지 않을 때 사납고 무서운 행위가 뒤따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에 거역하여 화를 내는 것은 참으로 무가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망치질을 잘못해서 손등을 때려 멍이 들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것으로 화가 나서 망치를 보리발 너머로 던져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번잡한 길에서 타고 가던 차의 타이어가 터졌다고 해서 쌍스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사실에 대해서 화를 내는 일도 나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화를 낼 때는 골격찬 이야기와 험한 눈썹으로 뒤바뀌게 되고 마침내는 험한 꼴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뒤따르던 차가 앞으로 나가면서 아슬아슬하게 앞길을 방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에 화를 내고 앙갚음을 하겠다는 뜻으로 차의 속력을 줄이지 않고 덤벼든다면 이미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간에도 상을 찡그리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얼른 부모가 친히 모범을 보여 조용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체하지 못할 노여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마치 분별이 없는 아이들과 같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구 자기의 걱정을 들어내곤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화를 다스려야 할 것이며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가장 강수성이 예민할 때 노여움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빚어진 험악한 분위기를 체험하며 아빠와 엄마가 주고 받는 격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과연 어디서 고상하고 다듬어진 성품을 배울 기회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감로가 예민한 인화지와도 같아서 선악 간의 온갖 사건을 아로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귀로 듣는 이야기는 잊어버리는 수가 있지만 저들이 겪어 체험한 일은 쉽게 잊지 않을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컷전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남편과 아버지 되는 사람들에게 그 아내와 자식에 대해서 취할 바를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노하기를 그치고 걱정은 달랠시다.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화를 내지 않도록 합시다……”(브리감 영의 담화, [데저렛 출판사 발행 1941] 268—69페이지)

어디서 읽었는지 확실치는 않으나 역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즉, 함께 기도할 수 없겠거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저는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담화문을 참조할 것)

몇해 전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부모가 되는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 앞에 결코 합당치 않은 모범을 보여서는 안됩니다……저들에게 여러분이 주고 받는 험악한 이야기를 듣게 해서도 안됩니다. 스스로를 자제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격정에 쉽게 휘말리는 사람은 그가 어떠한 일에 휘말리거나 약자입니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4년 12월호)

우리에게 닥치는 혼란이 발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역경을 지혜있게 극복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고 보다 그리스도에 접근하게 됩니다.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도 노여움은 때로는 의로운 일로 그리고 때

로는 불리한 일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의로운 노여움은 일종의 신성이며 그것은 사악함을 향하여 영원히 빛을 밝힐 것입니다.

즉 영감을 받은 자가 의로운 노여움으로 일어서서 언어나 행동으로 불의를 대적하게 되며 모세는 주님이 기록하신 십계명이 적힌 판을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상하였다 하여 이성을 잃고 추한 모습을 들어내며 증오에 가득찬 눈을 번득이게 된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어째서 노여움을 폭발하여 이성을 잃는 것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에게는 그러한 격정을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단히 고삐를 움켜잡지 않는다면 곧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사랑마저도 잃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학대와 위계의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노여움을 다스리는 자로의 훌륭한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진 빌라도 앞에 온전한 위엄과 평정을 갖추고 섰던 것입니다. 그는 노여움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거룩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흠모해야 할 훌륭한 모범을 보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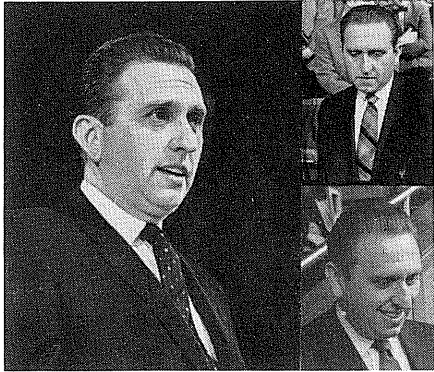
온 세상의 선생이신 구세주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봅시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 5: 43—44.)

물론 이와같이 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생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결의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 개개인은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가정에는 아름다운 사랑과 화평의 하모니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여러분께 증거하며 주님께서 도우사 이러한 일을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는 바입니다. 아멘.

○



절름발이, 외로운 사람, 죄인에 대한 우리들의 임무가 무엇인가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잃어버린 대대

● 지난 11월 나는 불란서의 중심부를 유유히 흐르는 세느강을 가로 지르는 다리 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1918년의 휴전 협정이 맺어지고 세계 대전이 종결된 때로부터 오십이년이 흘렀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머리 속을 메어 왔습니다. 나는 오십이년 전의 세느강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돌이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다리를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지나야 했는가? 더러 돌아 온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에게 이 세느강 다리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였습니다. 비미 리지, 아르멘티어, 누에브 샬벨 등지의 전장에는 수많은 생명이 숨져 갔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하얀 십자가는 잊지 못할 그날의 참상을 되살리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이 그토록 야만스럽게 몰아치는 가운데 사람에게 용명을 날게 하고—사랑으로 일어서게 하다니 이상하단 말야”

소년 시절에 나는 “잃어버린 대대”에 관한 기사를 펴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잃어버린 대대”는 세계 제1차 대전 당시 제77보병 사단에 예속되었던 부대였습니다. 뮤즈—아르곤의 대공락이 전개되는 동안 한 소령이 이 대대를 지휘하여 적진을 뚫고 진격해 나갔는데 측면 부대가 전진을 감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대대 전 병력은 완전히 포위를 당했고 물과 식량도 떨어지고 부상병의 후송과 치료도 막혔습니다. 그 위

에 파상적인 적의 공격은 되풀이 되었고 이 대대의 항복을 촉구하는 제의는 빗발쳤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이 대대의 강인성을 대서 특필했고 일부에서는 이 대대의 운명이 기구하다고 했습니다. 악전 고투의 얼마 동안이 지난 뒤 77사단 예하의 다른 부대가 혈로를 뚫고 진격하여 “잃어버린 대대”를 구출했습니다. 적지의 전우를 구하겠다는 사랑으로 일어난 이들 구조부대 용사들의 무용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앞서서 자원했고 그리하여 가장 용맹스럽게 싸웠으며 장엄한 죽음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비견되는 감람산의 수훈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의 컷전을 울릴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 15: 13)

이제 “잃어버린 대대”의 맹세는 망각되었고 이 부대의 구출을 위해서 지불된 막대한 댓가도 사람들은 이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로 눈을 돌려 오늘날의 상태를 조사해 봅시다. 오늘날에도 “잃어버린 대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들을 구출해 내는데 있어서 우리가 맡은 임무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가까이 군복을 입지도 않았고 복소리에 발—맞추어 행군도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 고립된 자들만이 느끼는 회의와 절망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절름발이, 병어리, 장님 등 신체의 장애로 인해서 “잃어버린 대대”가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을 못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허청허청 걸어 가거나 한치씩 흰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몰라서 멈춰서서 거리고 가슴이 아파진 때가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주변에는 암흑의 별판을 방황하는 무리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잃어버린 대대”의 구조 작전을 눈으로 확인하려거든 시립 맹아 보호 센터에 가서 앞 못보는 이들을 위하여 글을 읽어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불구자들에게 어떤 기술이 가르쳐지고 있는가를 잘 살펴 보십시오. 저들에게 적성에 맞는 일정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는 자들의 노고가 가슴을 울릴 것입니다.

비참한 불구가 된 자들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관용과 사랑으로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암담한 저들에게 가져다 주는 빛과 광명 속에서 풍성한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과연 저들의 예민한 손가락이 접자로 된 성경의 책장을 넘길 때 말할 수 없는 환희를 느꼈습니까? 저들은 요한복음 십 이장에 이르러 평화의 왕자의 약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음미하며 잠시 손을 멈춥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

에 왔더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요한 12:46)

연로하였거나 홀로 되었거나 병마에 시달림을 받는 “잃어버린 대대”를 생각해 봅시다. 흔히 이들은 외로움 혹은 고독이라고 일컬어지는 메마른 외딴 벌판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춘이 지나고 건강이 다하면, 젊음의 충기와 정력이 쇠하면 소망의 밝던 불이 희미해지고 이들 무수한 “잃어버린 대대”의 요원들은 이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가진 자의 도움과 협조로서만 비로소 일어서게 됩니다.

뉴욕 부록크린에는 지금 열 세살의 소년으로 쏘트레이크 시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구조해 낸 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그 소년과 그의 동료들은 한 마을에 살았고 그 마을에는 연로한 과부가 많았습니다. 일년 내내 이들 소년들은 성대한 성탄 파티를 갖고자 계획하며 푼푼히 돈을 모았습니다. 오직 자기들만의 모임을 생각하던 이들이 성탄의 뜻과 의미에 눈이 뜨였습니다. 이들의 대장적인 프랭크는 자기들이 정성을 다해서 모은 자금을 이제까지 계획하던 파티에 쓸 것이 아니라 한 마을에 거주하는 나이 많은 과부를 위해 사용하자고 동료들에게 제의했던 겁니다.

이 새로운 제안으로 열을 올리게 된 이들 소년은 아주 커다란 통닭과 감자와 채소를 사고 성탄과 관련이 되는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그리하여 과부의 집을 찾아 다니면서 보배로운 선물을 날날이 전했습니다. 눈발을 헤치고 가파른 언덕 길로 오르면서 일행은 마침내 한 외딴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느릿느릿한 발소리가 문으로 다가 왔습니다.

잘 화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열 세살 짜리 소년들의 노래가 울렸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리고는 선물을 전했습니다. 이 거룩한 밤에 그 옛날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토록 아름다웠을 것이며 박사들이 전한 예물이 이토록 소중한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나는 그 훌륭한 여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누군가의 어머니”라고 뇌까렸고 그 착하고 장한 소년들을 바라 보면서는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구세주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마태 25:40)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경솔한 언행으로 서로 서로를 버리고 고립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과 딸로 구성된 또 다른 “잃어버린 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편협한 처사가 빛은 비극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짝이라고 부를 젊은이를 통해서 살피 보기로 합시다.

평생을 두고 짝은 아버지와 여러 가지로 심한 논쟁을 했습니다. 짝이 열일곱 살이었던 어느날 아침 특별히 심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짝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못 살겠어요. 당장에 집을 나가겠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커다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이 오른 그의 귀에는 그 애원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에 기대서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두고 떠났습니다.

마당을 지나 막 대문을 나서려는데 아버지가 짝을 불러 세웠습니다. “애야네가 집을 나가는 이유가 물론 나 때문인 것도 있겠지. 그걸 잘못 봤구나. 그렇지만 언제든지 돌아 오고 싶거든 오나라. 나도 더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마. 잊지마라. 나는 늘 너를 사랑한다.”

짝은 말 한 마디 없이 버스 정거장으로 가서 먼 곳으로 가는 버스 표를 샀습니다. 버스에 앉아 하염없이 달리는 동안 그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하신 만큼 하려면 얼마나 큰 사랑이 있어야 하는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 오라고 하셨습니다. “너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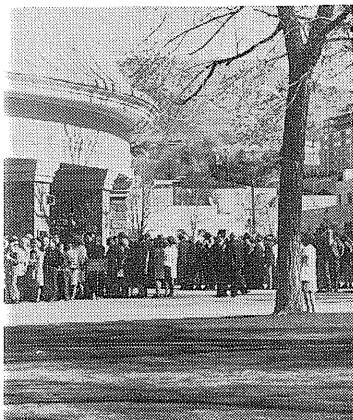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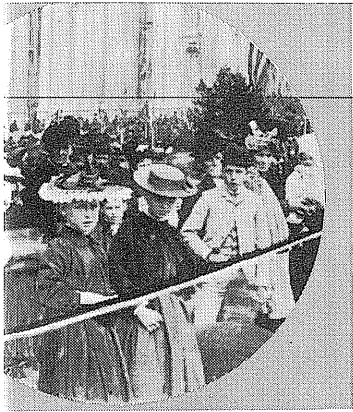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가 여름 하늘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짝은 이번에는 자기 쪽에서 행동을 취할 차례라고 느꼈습니다. 짝은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자애와 관용과 사랑을 자기 스스로 닮는 길이 자기의 평화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짝은 버스를 내렸습니다. 그는 되돌아 가는 차표를 사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좀 지난 때였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 서서 전등을 켰습니다. 거기, 흔들 의자에 아버지가 손으로 턱을 피고 앉아 계셨습니다. 눈을 들어 짝을 보시고는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팔을 벌리고 마주달렸습니다. 짝은 가끔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 내가 집에서 보낸 시간이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루 밤 사이에 철부지가 어른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존심을 누르고 아들이 “잃어버린 대대”의 일원이 되기 전에 구출한 아버지가 있었노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사랑이 서로를 연결하는 때였습니다. 오직 사랑이 상처를 아



물게 하는 약이었습니다. 사랑은 너무 자주 느끼면서 표시하기가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천둥같은 소리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출애굽기 20 : 12)는 주의 음성이 들렸고 이어 “사랑으로 함께 살라”(교성 42 : 45)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또 다른 “잃어버린 대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의 숲에서 몸부림치고 있고 무지의 벌판에서 방황하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사실 우리들 모두가 잃어버린 대대의 대원으로 일컬어질 존재인 것이며 영원한 사명을 결머진 대대인 것입니다.

“.....사망이 인간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안에서 모두 죽느니라.”(고전 15: 21-22). 우리들은 모두 사망을 겪어야 할 존재입니다. 아무도 죽음에서 면제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한 낙원은 영원한 허상에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친구도 잃은 채 빈 기억만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감사하는 것입니

다. 천사가 전한 복된 메시지를 들어 봅시다 :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마태 1 : 21)

불란서의 강물 줄기가 형제의 목숨을 구출하고자 진격한 부대의 행적을 말없이 증거할진대 그밖의 또 다른 강은 은우주의 구원을 이루고자 거룩한 구속주로서 일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증거할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마가 1 : 11)

오늘 보면 구세주께서 갈릴리의 성역자로 일하시던 해변의 도시 가버나움은 다만 폐허로 남아있습니다. 이곳 회당에서 주는 가르치셨고 해변에서도 가르치시며 가정에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예수께서(누가 4 : 18)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 “주 여호와 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

에게 놓임을 전파하며”(이사야 61 : 1) 라고 분명히 전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속한 “잃어버린 대대”를 구하시겠다는 거룩한 계획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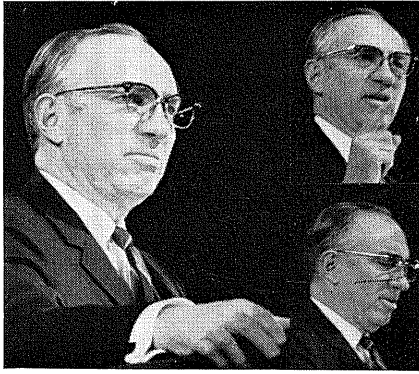
마지막 만찬 이후 셋째마네 동산에서 제자의 밀고로 잡히사 가진 모옥과 칩쌀을 당하셨고 그리스도는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진 채로 갈보리 산을 향하여 비틀 걸음을 떼어 놓았습니다. 그는 승리를 딛고 일어서서—배신을 당하고—고난을 받으며—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만행은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는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를 극복하시고 있고 인류와 세상의 모두를 구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세계에서는 주의 시체를 돌보려고 무덤에 왔다가 울고 있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그분은 이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누가 24 : 5-6)

이 약속에 의하여 인류의 “잃어버린 대대”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과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나 언젠가는 죽을 사람과 차차 태어나 죽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들 모두의 끝없는 죽음을 걸우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진리의 선생이심을 증거합니다. 참으로 그분은 선생 이상의 선생이셨습니다. 인류의 “잃어버린 대대”를 구하신 분은 세상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요 화평의 왕자요 다시 사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증보자니라”(교성 110 : 4)

이것을 여러분께 증가하며 주가 살아 계심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시다. 아멘. ○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네개의 주춧돌

골든 비이 킵클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께서서 지으신 집이라야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때는 사월이요 세상 만물이 소생하는 영광의 절기입니다. 약속과 아름다움의 계절이며 서로서로 사랑을 나누는 계절입니다.

오늘 아침 손에 손을 잡고 준수하게 생긴 젊은 남녀가 이 건물로 향하여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인의 손가락에는 금강석의 반지가 반짝거렸는데 곧 그 두 젊은이는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월이 오월로 접어들고 다시 오월이 유월이 되면 수천 쌍의 젊은이가 결혼의 문을 들어설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몇해 전에 내게 부탁을 해서 주례를 맡았던 어떤 젊은이의 결혼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을 남자는 팀이라고 부르고 여자는 수라고 부릅시다. 저들은 장래가 촉망되는 아직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문도 훌륭했습니다.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들은 서로서로를 극진하게 사랑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결혼식은 서로가 잊지 못할 만큼 인상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의 신권의 권세로 무한한 축복이 떨어졌습니다.

몇해의 세월이 지나 이 가정에는 자녀가 셋이나 생겼습니다. 곁으로는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팀과 수가 다시 나를 찾으러 왔고 이번에는 팀과 수가 따로따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얼굴에는 눈물과 수심만 가득할 뿐 미소의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들의 이혼을 상의하러 찾아 온 것이었습니다. 깊은 갈망으로 속삭이던 사랑의 하소가 이제는 서로를 질책하는 말로 변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잔잔한 봄날의 햇빛이 그치고 별안간

닥치는 사나운 폭풍우와도 같은 변화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나?” 내가 물었습니다. 수는 헤어짐으로써 아이들이 계속되는 다툼의 모습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이미 싸우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만큼 성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은 가슴에 오래 남을 상처를 체험할 만큼 예민한 연령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도대체 팀과 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말입니까? 이와같은 수천 수만의 젊은이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 나라에서는 세 쌍 내지는 네 쌍의 부부중 한 쌍이 이혼으로 그 결합의 종말을 맺습니까?

미국에서는 매년 약 400,000명이 이혼을 합니다. 이들은 적어도 자녀 오십만명의 부모이기도 한 것입니다. 현재 이 나라 성인 중에 약 육백 명이 이혼하였거나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기가 어려운 나라에서도 이와같은 병폐는 만연하고 있으며 이혼의 비극을 초래하게 하고 부도덕하고 비합법적인 사련을 사주하는 악의 물결이 어지럽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격증하고 있는 슬픈 사연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사실상 수백만의 아이들이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며 어린 아이가 느껴야 할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귀한 돈을 수억불씩 들여야 하는 사회 복지 사업이 근본적으로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태초로부터 성립될 가정의 체제에 대한 거부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 아픔과 실패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더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비극을 방지할 수 있는 방편에 관하여 몇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을 꿈꾸며 안락한 가정을 설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미 옛날에 정해진 말씀을 인용해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시편 127:1)

이러한 집을 짓는데 필요한 주춧돌 네 개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요? 물론 다른 요소로 있겠습니다만 나는 이 네 가지를 강조하고자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택했습니다. 이해하거나 이행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쉽게 처리해 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나는 여러분이 이러한 기초의 바위 위에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을 세울 때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은 끝까지 지속될 것이고 해가 거듭될수록 서로서로의 사랑이 두터워지며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를 축복하면서 살 수 있으리라는 것을 주저없이 약속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알고 영원한 기쁨을 허가받게 될 것입니다.

첫번째 기초는 상호간의 존경입니다. 물론 이 존경이란 상대를 자기의 소유가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로 여기는 존경이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상대를 우격다짐으로 몰아 세우거나 이기적인 자기의 의사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며 따로 찾거나 간청하지 않아도 됩니다”(보배로운 마음 165페이지)

이러한 존경은 우리들 개개인이 하나

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비롯되며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의 감정을 발표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의 재능을 다듬고 인내와 이해와 정성과 관용을 활용하므로써 정리됩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낭만에 역점을 둔다기 보다는 상대의 안락함에 더 큰 관심을 둡니다.

결혼에 있어서 부부간의 유대는 자칫 하면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며 덤덤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을 좀더 밝고 행복한 것이 되게 하려면 남편은 자기 곁에서 반려로의 도움을 주고 있는 아내가 하나님의 딸이며 자기와 함께 불멸의 창조의 대업을 맡기로 약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두 갖고 있으며 사랑과 칭찬과 격려가 있을 때 구현되는 거룩한 품성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쌍방에서 기울일 때 그 노력의 맺가는 단 한번도 헛되지 되지 않을 것이며 상호간의 애정은 깊어질 것입니다.

내가 두번째로 지적하는 사항은 지극히 간단합니다만 나는 이 문제를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상냥한 대답이라 하겠읍니다.

옛 말씀에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잠언 15:1) 했읍니다.

부드러운 언사를 쓰면서 욕을 먹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욕성을 높일 때 불꽃이 튀게 마련이고 태산같은 노여움의 다름이 시작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신을 따르는 자와 대면했던 때의 기사가 내게는 늘 뜻깊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열왕기상 19:11-12)

하늘의 소리는 잠잠하고 조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화평의 소리는 조용한 소리일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한 사람의 동반자로서 뿐 아니라 한 몸으로서의 자제가 필요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바 아버지와 앞으로 아버지가 될

사람에게 전하신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며 나는 이 말씀보다 더 의미깊은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했음을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인식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드러운 말을 쓰며 자녀에게로 부드러운 말을 쓴다면 가정의 행복은 얼마나 풍요로울 것이며 자녀의 생활은 얼마나 안락할 것이며 사회의 이혼률은 얼마나 줄어들 것이며 가정 내의 기쁨과 사랑과 화평은 얼마나 두텁겠읍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에베소서 6:4)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정의 평화는 곧 은유한 음성입니다.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있어서의 세번째 주춧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과 서로 서로에 대한 정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명한 법률가요, 교회 지도자요, 세상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하신 형제 한 분이 자기는 돈이 물질 문명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구가 된다고 분명히 알지만 그만큼 돈에 따르는 비극도 크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노라고 했읍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 하던 그 젊은 친구는 자기 아내가 너무 사치스러우며 돈을 마구 낭비한다고 아내를 못마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그 아내는 남자가 께께하고 인색하기 이틀테 없다고 불평을 했읍니다. 결국은 돈 한푼에 대한 상호간의 마찰이 저들의 사랑에 금이 가게 한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말라기를 통하여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계명의 말씀에 따라 가정을 이루는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읍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는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결혼에 수반되는 임무는 여러 가지입니다.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 많은 임무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를 지킴에 있어서 철저하게 정직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이 법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나의 엄숙

한 간증을 드리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어김없이 이행하십니다. 십일조의 법을 정직하게 지키므로써 가정에서의 화평과 가족간의 사랑을 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선으로 임무 수행에 총력을 경주한다면 일상 생활에서 여러분을 혼란으로 유도하는 비틀어진 이기심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주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과는 더 부드럽고 정직하고 관대하게 어울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베번께 주춧돌로 나는 가족 기도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계속하는 것 보다 여러분의 생활을 더 가치있게 만들어 주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서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나누고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단란한 가정과 삶의 영광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신데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는 요소와 폭풍은 제지되고 방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가정에서 안전과 평안을 느낄 것이며 그 가정에는 주님의 영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자녀를 한데 모아 사랑으로 가르치셔야 하겠읍니다. 저들은 부모가 서로 존경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는 존경할 줄 아는 자세가 심어질 것입니다. 저들은 나누어지는 부드러운 대화에서 따뜻함을 체험하게 되고 저들의 폭풍같은 갈등은 잠잠해 질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저들의 부모가 서로서에게 정직하며 이웃에게도 정직하게 대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자라면서 부모가 가족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듣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돈독해 질 것입니다.

별망의 천사(교성 89:21 참조)는 여러분의 가정을 범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은 사랑과 화평이 여러분의 일생을 통하여 또 영원을 두고 계속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빌어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했읍니다. 아멘 ○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교리와 성약 18:10)

선교부장 부 라 운



● 주님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온 세상의 백성에게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와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주님의 교회에 입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랴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로마서 10:13-14)

우리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 계시던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파해 준 사람에게 향하는 감사의 념을 영원히 잊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교회의 회원이 되지 않았던들 오늘날 우리의 처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하려 하겠습니까? 저의 선조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의 간증을 우리 선조에게도 심어준 사람들에게 저는 마음 속으로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교회 회원이 된 사람은 5천 명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조용한 아침의 나라”인 이 땅에 살고 있는 수 백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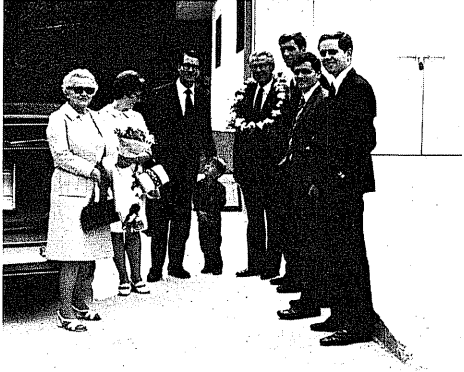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 회원인 여러분에게 선교 사업에 참여하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친구도 많고 친척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 들을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누구에게서 어떻게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선교부 내의 모든 지방부에서 “특송 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훌륭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여러분은 많은 친구를 교회에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을 다해 선교 사업을 받들어 준다면 교회는 발전하고 번창하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회원들 간에 하나로 단합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날보다 더 큰 발전이 찾아 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민족인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권고합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구세주의 기쁜 메시지를 온 세상의 백성에게 전파하는 위대한 사업에 더욱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



태너 부대관장님 방한

대관장단의 일원이며 전 미국 소년단 지도자로 있는 엔 엘든 태너 박사 내외분이 지난 9월 14일 12시 김포공항 착 우리 나라에 오셨다. 오후 7시 동부지부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신 바 있는 태너 형제 내외분은, 선교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선교사를 접견하는 등 바쁜 일정을 마치고 다음날 오후 이한 하셨다.



